

LG전자, 기후변화대응 국내 1위

CDP한국위원회, 100대기업 대상 ... 2009년 상반기 210만톤 감축

LG전자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선정하는 저탄소 녹색기업 1위에 선정됐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만든 기구로 대상기업의 탄소경영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투자지표를 만드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CDP 한국위원회는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 위협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저감 성과, 기후변화 대응체계 지배구조 등을 분석해 저탄소 녹색기업을 선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2009년 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경영을 펼쳐온 결과”라며 “상반기에만 21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10월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Paul Dickinson CDP 대표, 이명자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8>